

#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최

### 1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시·강연·공연·체험·북마켓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시가 이미지와 텍스트, 놀이와 예술,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국내외 그림책을 전시·강연·공연·체험·북마켓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나볼 수 있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연다.

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관 등에서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림책은 '1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책'이라는 말처럼 짧은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까이하기 쉽고, 나라나 지역,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확장성이 큰 콘텐츠이다.

시는 이러한 그림책의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해 지난해 5월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열었다. 올해도 국내외 유명 그림책과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국내의 그림책 원화 전시 △그림책 작가 및 출판편집자, 번역가 등 관계자 강연 △그림책 공연 및 체험 △북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그림책도서전은 각 도서관과 지역서점 등에서 원화 전시를 비롯한 강연, 공연 등을 나누어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주요 전시와 강연, 출판사 북마켓 등을 팔복예술공장에서 연다.

우선,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는 그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이수지, 막스 뉘코스,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의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수지 작가는 '겨울숙으로',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 등 이미지의 힘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글 없는 그림책을 통해 그림책의 새로운 가능성과



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관 등에서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확장성을 보여준 작가로 유명하다. 프랑스의 막스 뉘코스 작가는 '비밀의 집 불휘빌리스' '등대 소년' 등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림책 작가이다.

일본의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는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야기와 독자에 따라 다양한 일러스트 스타일을 선보이는 작가로, 국내에 출간된 그림책으로는 '강통차기', '웃, 마음이 자라고 있어', '보끼와 고슴도치의 오늘도 좋은 날' 등이 있다.

강연은 초청 작가인 막스 뉘코스, 이시카와 에리코, 이수지 작가는 팔복예술공장에서 5월 13일과, 27일, 6월 3일에 각각 진행되며, 전시된 그림책 위주로 작품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막스 뉘코스 작가와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는 이번 강연을 통해 최초로 국내 독자와 만날 예정이다.

그림책의 주요 대상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

어 있다. 작년에 어린이 및 가족이 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그림책 작가 1인 극장에는 광민수, 강미애, 유진, 이예숙 작가가 참여하며, 2시간 동안 작가가 직접 그림책 속 캐릭터를 활용한 공연과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준다.

개막식이 열리는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야외에서는 그림책 출판사와 지역서점이 함께하는 북마켓이 열린다.

그림책 작가 및 관계자의 강연과 1인 극장 등 주요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7일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여 일부 강연은 10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병수 본부장은 "그림책은 최근 독자층이 확대돼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까지 함께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잡았다"며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이러한 그림책의 매력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일본 시즈오카현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알리다

### 김인태 부시장 등 전주 대표단, 개막식 참가 전주 매력 알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일본의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시즈오카현 주민들에게 소개되었다.

전주시는 2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에 참석해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인 천년 문화를 품은 전주의 전통문화를 선보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주시 김인태 부시장을 비롯해 이영숙 문화정책과장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합곡마을 기접놀이 공연단(대표 김여명)도 개막

식에 참석해 200년 이상 전승해 온 전북 무형문화재인 기접놀이 공연으로 전주의 매력을 알렸다.

또, 대표단에는 전주시의회 전운미(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윤해정(문화경제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양 도시 간 상호 문화교류의 지속방안을 논의하고, 의회 간 정기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대표단은 개막식 전담, 카와카즈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현 지사를 예

향하고, 세계연극제를 개최 중인 시즈오카현 무대예술센터(SPAC)를 방문하는 등 전주-시즈오카현 간의 우호 증진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즈오카현 개막식에 참석한 김인태 부시장은 "전주와 음식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미식의 고장 시즈오카현에서 우리 전주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올해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도시 모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부처단계 국가예산 반영 총력

### 기재부 예산실·국토부 방문 핵심사업 당위성 설명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및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내년 국가 예산에 지역 핵심사업을 담아내기 위해 정부 부처를 찾았다.

특히 정부 각 부처의 내년 국가 예산편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성격으로 의미를 더했다.

우범기 시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민선 8기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의 내년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우 시장은 핵심사업의 관련 부처인 국토부의 첨단항공과와 항공정책실을 비롯해 국가 예산의 키플 권 기재부의 예산실장과 예산총괄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내년 예산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 시장은 건의한 핵심사업은 △후백제 역사문화의 연구, 조사, 보존, 정비활용을 위한 거점공간이 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호남권 대표거점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K-드론 미래산업 선도 인프라 조성으로 글로벌 드론 강국 성장 견인을 위한 '드론 핵심기술개발 주주기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시는 핵심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려 왔다. 우 시장은 지난 1월 기재부 회상대 제2차관의 전주 방문 시에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고, 2월 국회 방문으로 정치권의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기재부와 국토부 등 주요 부처를 찾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연초부터 지속해서 발품을 팔

아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왔다. 시는 오는 31일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막판까지 총력전을 예고했다. 담당 간부 공무원인 심국, 소장을 중심으로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진행하고, 부처 예산편성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부처별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주시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부처 예산안에 담길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부처 의견이 반영된 사업안을 적극 어필하고 최종 예산편성을 확정하는 기재부의 설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향후 최종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될 때까지 정치권 공조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이어가

### 서신동·효자3동서 소통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동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일 오전과 오후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일정으로 각각 국민체육센터 1층 체육관과 서도프라자 10층, 문화공간 이룸아트홀에서 서신동·효자3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장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주 대변혁



을 위해 전주의 미래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을 앞서가기 위해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도시·경제·문화·복지의 4대 분야의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우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서신동·효자3동 주민들의 주

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서신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서신도서관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도내기생공원 서신길공원 연결통로 구축 △전주천삼천 일대 통합문화공간 조성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어 효자3동에서는 △효자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건의 △전주천·삼천 통합복합문화공간 조성 △우림교 경관시설물 보수 등 시장 현안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시는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교통사고 예방 위한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전주시가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회전교차로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23곳에서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를 민선 8기 임기 내 4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3개소 이상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당동 모악산 자락길 교차로 2개

소와 효자동 효열공원 사거리 2개소 등 4개소의 회전교차로를 확충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는 도로의 구조를 변경해 교차로 내 차량의 상충 횡수를 줄이는 대신 진입하는 차량의 감속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을 낮추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해 회전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지며,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시가 전북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 회전교차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고율이 50% 감소하는 등 교통 안전성과 교통 소통 측면에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